

기본간호학 교과내용 개선을 위한 일 조사연구* -간호학 교수와 임상실무교육 간호사를 중심으로-

강 규 숙* · 공 은 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간호사로서 기능하는데 필수적인 다양한 간호이론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간호학의 여러 전공분야 중 기본간호학은 간호학생들이 가장 먼저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서 병원이나 지역사회에서 임상실습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간호기술과 이론을 가르치고, 실습실에서 실무를 경험해 보도록 하는 학습과정이다. 따라서 기본간호학 교과내용은 그 범주에 있어 간호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과 기술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방법에 있어 학생들이 명확하게 개념을 인식하고, 정확한 간호술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차츰 단계가 높은 수준의 간호이론과 기술을 쌓는데 문제가 없으며, 졸업 후에 간호사로서 임상활동을 할 때 효율적인 간호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 간호소비자(환자 등), 간호학생, 간호사, 임상간호실무교육자 그리고 간호학 교수들은 한결같이 임상실습교육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의식수준 향상 및 교육적, 경제적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양질의 간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간호소비자들은 간

호학생들이 제공하는 간호를 신뢰할 수 없어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며(양, 1994), 간호학생들은 학교교육과 임상실무간의 큰 차이와 자신의 부족한 지식과 기술 때문에 혼돈, 스트레스, 자신감 상실, 그리고 간호에 대한 흥미상실 등을 느낀다(고와 김, 1994; 이, 1989). 간호사들 또한 학교교육과 임상실무간에 큰 차이 때문에 임상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어 간호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으며(임상간호사회, 신경립 1993, p.97), 임상실무교육자들은 신졸간호사들이 취직 후 제대로 기본간호술이나 지식을 적용하지 못하므로, 재교육을 시키는데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고, 간호소비자의 요구도에 즉각적으로 부응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양 등, 1994). 학교에서 기본간호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기본간호학이 너무 방대하고,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학습교재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까지 임상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간호업무의 한계 또는 제약의 탓도 있겠지만, 간호학자들이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였던 점도 사실이다. 특히 기본간호학 교과내용에 있어 한국의 임상실무에 합당한 간호기술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가르치기보다는, 외국의 임상실무 상황이나 수준에 맞게 짜여진 내용들을 그대로 번역하여 가르침으로서 학생들이나 간호사들이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예수간호전문대 조교수

실제의 임상활동이나 상황과 교육내용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날로 국내 간호소비자들의 질적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시설들도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간호서비스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간호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이에 적합한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교육과 임상실무간에 큰 차이나 혼동을 느끼지 않고,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감을 갖게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간호학의 기초가 되고 있는 기본간호학 교과내용을 잘 구성하여 범주를 뚜렷이 해야 하고, 수시로 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계속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교과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첫 출발점으로서 본 연구는 3, 4년제 대학의 간호학교수들과 병원에서 임상실무교육을 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현상태의 기본간호학 교육과 교과내용에 대한 평가, 기본간호학 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조사하여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기본간호학 교과내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 1) 기본간호학 교육과 교과내용(이론과 실습교육)에 대한 3년제 간호전문대학 교수, 4년제대학 간호학 교수,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임상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의 평가실태를 파악하고 세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 2) 기본간호학에서 다루는 교과내용중 불필요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교과내용을 파악한다.
- 3) 기본간호학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파악한다.

II. 문헌고찰

간호학교육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반적인 간호학의 교과과정개발이나 특정간호과목의 교과과정개발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강, 1971; 김, 1974; 변, 1974; 조 및 이, 1994; 조 등, 1994; 홍, 1995). 그러나 기본간호학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변(1983)의 논문 이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변(1983)은 기초간호학을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인간의 기본욕구의 개념, 중요성 및 저해요인과 욕구충족을 돕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본간호학 교과과정 방향을 포괄적이면서, 기본욕구 중심의 종합적 접근법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면서 욕구별 범주를 제시했다. 그러나 변(1983)은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본간호학 교과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본간호학 교과내용의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과서용 기본간호학 서적들을 점검해 본 결과 이론과 실제를 함께 다룬 교과서와 간호 기술을 주로 다룬 실습교과서로 나눌 수 있었다. 이론과 기술을 다룬 교과서들 중 간호와 대상자, 간호과정, 건강사정, 치료적 상호작용, 건강교육, 보건환경과 안전, 신체적 건강욕구, 사회심리적 건강욕구, 그리고 치료적 간호 등 포괄적인 이론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대부분 이나(김 등, 1996; 손 등, 1996; 홍 등, 1995; 정 등, 1994), 건강사업과 간호사역활, 간호과정, 기본욕구, 일반적 건강문제 등 몇 개의 선정된 주제만을 다룬 것(홍, 강, 및 이, 1995; 김, 김, 이 및 박, 1992)도 있다.

기본간호학 실습서는 임상간호기법들을 선정하여 개인위생, 안전욕구, 영양욕구, 산소욕구, 투약, 체위변경, 식폐소생술, 수술, 사후처치, 간호기록, 활력징후측정 등과 관련된 간호술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었으며(김 금순, 1995, 1995; 손 등, 1996; 장, 1996; 정, 강, 및 고, 1994), 서울대학교병원(1994)에서 편찬한 실습서는 기본간호술로 신체계측, 활력징후, 위생간호, 운동 및 체위, 배변 그리고 배뇨와 관련된 기본적인 간호술을 포함하였고, 기타 치료적 간호, 진료과별 간호 그리고 검사 관련 간호 등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간호술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기본간호학 이론과 실습서적들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과연 단계적으로 가장 초보적인 과정인 기본간호학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간호학에서 다루지 않고 타과목에서 다루거나 상급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습득해야 할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기타 기본간호학과 관련된 주된 연구주제는 기본간호학 학습방법의 효과(강, 1990; 정, 1994), 기본간호학 교육현황(김 및 강, 1982; 유, 1995), 기본간호학 교육에 대한 간호학생의 만족감 또는 자신감(권, 1985; 김, 1976; 유, 1992; 차, 1981), 그리고 임상실습에서 주로 이루어진 기본간호요구에 대한 간호학생의 중요성 인식과 수행과의 관계(김, 박, 및 심, 1992; 정, 1992; 한,

1939)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간호학 교육과 기본간호학 교과내용에 대한 평가, 기본간호학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일차적으로 간호교육자나 임상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파악하는 일은 기본간호학의 교과과정과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실험연구로서 설문지를 이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파악하고 3년제 교수집단, 4년제 교수집단, 그리고 임상실무교육담당 간호사집단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비교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 3, 4년제 간호대학에서 교과과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과 500침상 이상의 대규모 종합병원에서 간호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로서 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지방에 소재하는 3년제 간호대학 30개교, 4년제 간호대학 30개교, 그리고 대규모 종합병원 30개를 임의로 할당표집하였다. 그러나 총 대상자 90명 중 70명이 응답해 자료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4년제 간호대학교수 24명, 3년제 간호전문대학교수 20명, 그리고 종합병원의 간호실무교육자 26명이었다.

3. 연구도구와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들이 직접 개발한 질문지로서 내용은 모두 4개의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Part I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15개의 문항이었고, Part II는 기본간호학의 이론과 실습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10 문항이었으며, 측정은 찬성한다, 그저그렇다, 그리고 찬성하지 않는다 로 측정하였다. Part III은 기본간호학 이론교육내용 26문항과 실습교육내용 81문항을 포함시켰는데, 시중에 출판된 한글판 기본간호학 서적들이 다루고 있는 이론과 실습내용을 기초로 구체적인 모든 항목을

추출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측정은 각 문항이 기본간호학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저그렇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 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Part IV는 기본간호학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견해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1995년 9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절차는 먼저 전국의 3년제 4년제 간호대학과 종합병원의 명부를 서울과 지방별로 나누어 작성하였으며, 서울과 각 지방의 학교와 병원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때 학과의 역사와 규모, 그리고 병원의 규모도 고려되었다. 연구에 대한 설명서와 질문지는 선정된 3, 4년제 간호대학의 교무과장과 종합병원의 간호부장 앞으로 발송하였으며, 발송한지 한달 후에 응답독촉화를 실시했다. 응답률은 78%로 총 대상자 90명 중 70이었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값 등의 기술적 통계를 구하였고 세 그룹간의 차이는 실제 빈도수를 참고하여 분석할 수 있는 카이검증값을 구했다. 또한 서술식 항목에 대한 응답은 서술한 내용과 빈도를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공간의 제약으로 글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체적인 기본간호학 교육내용의 문항에 따른 세부적인 집단별 응답실태는 생략하고 전체의 응답 실태와 카이검증 값을 제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분포는 1명(1.4%)의 남성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 69명(98.6%)이었고, 연령분포는 31세에서 50세가 대부분(90%)이었다. 학력은 석사학위 소지자가 전체 대상자의 60%, 박사학위 소지자가 27%, 학사하위 소지자가 7%,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자가 6%로 나타났다. 실제 임상경력은 5년 이하인 대상자가 43%로 가장 많았고, 6-10년은 17%, 11-15년은 13%, 16-20

년은 11%, 20년 이상은 8.4%였으며, 임상경험이 전혀 없는 대상자가 7%였다. 응답간호사의 73%는 침상수 500-1000개를 보유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23%는 1001-1500개의 침상을 가진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응답간호사의 직위는 수간호사가 27%, 감독간호사가 27%, 과장이나 부장이 27%였으며, 평간호사는 8%, 주임간호사는 11%로 나타났다. 교수들의 교육경력은 10년에서 20년 사이가 52%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하가 36%, 그리고 20년 이상이 11%였다. 응답한 간호학 교수들 중 기본간호학을 담당하는 교수가 77%로 가장 많았고, 성인간호학을 담당교수는 18%, 아동간호학을 담당하는 교수는 5%로 나타났다. 교수들의 학생 임상실습 지도경력은 대상자의 93%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본간호학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에 대한 평가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본간호학의 이론교육이 간호학전공에 필수적이다에 찬성한 대상자는 전체의 93%였으며, 실습교육이 간호학 전공에 필수적이다에 찬성한 대상자는 전체의 96%로 나타나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그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론교육이 임상활동에 필수적이다에 찬성한 대상자는 전체의 93%였고, 실습교육이 임상활동에 필수적이다에는 전체 대상자의 97%가 찬성하여, 역시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그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불필요한 이론교육 내용이 많다는 대해서는 대상자의 40%가 불찬성하였으며, 36%는 그저그렇다라고 응답했고, 24%는 찬성을 나타냈다. 불필요한 실습교육내용이 많다는에는 대상자의 50%가 불찬성, 30%가 그저 그렇다, 그리고 20%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으나 그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론교육내용이 변해야 한다는 대해서는 대상자의 36%가 찬성, 44%가 그저그렇다, 그리고 20%가 불찬성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그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3년제 교수의 35%와 4년제 교수의 21%가 불찬성을 나타낸 반면 간호사의 8%만이 불찬성을 나타냈고, 3년제 교수의 25%와 4년제 교수의 25%가 찬성을 나타낸 반면 간호사의 54%가 찬성을 나타냈다.

실습교육내용이 변해야 한다는에 대한 그룹에 따른 차이는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3년제 교수의 30%와 4년제 교수의 18%가 불찬성을 나타냈으나 간호사는 아무도 불찬성을 하지 않았으며, 3년제

교수의 45%와 4년제 교수의 25%가 찬성을 나타내 반면 간호사의 65%가 찬성을 나타냈다.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에 대한 그룹간의 차이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에 대해 3년제와 4년제 교수들의 25%가 찬성한 반면 간호사의 46%가 찬성을 나타냈고, 실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에 대해서는 3년제 교수의 65%와 4년제 교수의 63%가 찬성을 나타낸 반면 간호사의 85%가 찬성을 나타내 기본간호교육의 변화와 강화에 대한 욕구가 임상실무교육간호사들에게서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기본간호학 이론과 실습교육에 대한 평가

| 문항 | 반대 그저그렇다 찬성 | | | 카이검증 실수(%) 실수(%) 실수(%) |
|---------------|-------------------|----------|----------|---------------------------------|
| | 실수(%) | 실수(%) | 실수(%) | |
| 기본간호학의 이론교육은 | | | | |
| 간호학전공에 필수적이다. | 1(1.4) | 4(5.7) | 65(92.9) | 2.495 |
| 임상활동에 필수적이다. | 1(1.4) | 4(5.7) | 65(92.9) | 2.227 |
|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 | 28(40) | 25(35.7) | 17(24.3) | 0.904 |
| 내용이 변해야 한다. | 14(20) | 31(44.3) | 25(35.7) | 8.846 |
| 강화되어야 한다. | 13(18.6) | 34(48.6) | 23(32.9) | 12.631* |
|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은 | | | | |
| 간호학전공에 필수적이다. | 2(2.9) | 1(1.4) | 67(95.7) | 2.902 |
| 임상활동에 필수적이다. | 1(1.4) | 1(1.4) | 68(97.1) | 4.459 |
|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 | 35(50) | 21(30) | 14(20) | 2.804 |
| 내용이 변해야 한다. | 10(14.3) | 28(40) | 32(45.7) | 15.052** |
| 강화되어야 한다. | 4(5.7) | 16(22.9) | 50(71.4) | 10.651* |

* $P < .05$ ** $P < .01$ *** $P < .001$

3. 기본간호학 이론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

기본간호학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교육내용을 26개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고 꼭 필요한 내용인지를 조사한 결과, 필요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가장 필요도가 높은 내용은 무균법과 격리법에 대한 개념과 간호(99%)였으며, 개인위생과 간호(97%), 활력징후의 원리와 간호(96%), 투약방법과 간호(96%), 기록의 종류와 방법(93%), 기본육구의 개념(90%), 산소육구의 원리와 간호(90%), 배설육구의 원리와 간호(90%), 배뇨육구의 원리와 간호(90%) 등이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개 항목중 가장 필요성이 낮게 나타난 항목은 수술간호로서 대상자의 40%가 기본간호학의 교육내용으로는 불필요하거나 그저그렇다라고 대답했으며 성적육구, 약리작용, 질병원리 등도 불필요하거나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

가 30% 이상이었는데 그 이유로는 성격간호나 수술간호는 성인간호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질병의 원리와 간호에 대한 항목은 병리학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약리작용은 약리학 과목을 따로 배정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룹에 따른 견해 차이를 보인 항목으로 간호과정 5개 항목과 약리작용이 $P < .01$ 수준에서, 그리고 수술간호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간호과정에 대해 3년제 교수그룹과 간호사그룹은 아무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지 않았으나 4년제 교수의 21%는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 4년제 대학교수의 약 75-80%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간호사의 89%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리작용에 대해서는 3, 4년제 교수의 55%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간호사의 89%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

타났고, 수술간호에 대해서도 3년제 교수의 40%, 4년제 교수의 45%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간호사의 86%가 필요하다고 답해 임상실무교육간호사와 교수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4. 기본간호학 실습교육 내용에 대한 평가

기본간호학에서 다루고 있는 실습교육내용을 활력징후 및 체격측정술, 개인위생술, 무균 및 수술간호술, 온냉적용술, 안전육구에 대한 간호술, 투약술, 영양 및 배설육구에 대한 간호술, 산소육구에 대한 간호술, 신체사정술, 간호기록술 등 10개 영역에 관련된 81개의 구체적인 기본간호술 항목으로 나누어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활력징후 및 체격 측정술

9개 항목의 활력징후 측정술 중, 대퇴혈압측정술(80%)과 항문체온측정술(77%)을 제외한 모든 활력징후 측정술에 대해 대상자의 95%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하여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룹에 따른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었다. 활력징후 측정술은 대상자의 신체상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임상실습이나 간호사들의 임상활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간호기술이라는 연구결과(고 및 김, 1994)를 볼 때 실습교육의 내용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대퇴혈압측정술은 대상자의 20%가 그저 그렇다라고 답했는데, 이유로는 이 기술이 응급상황이나 특수상황에 있는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기술이므로 성인간호학에서 다룰 수 있는 실습내용이라고 답했다. 항문체온측정술 또한 영유아기 대상자에게 많이 사용하므로 아동간호학에서 다룰 수 있는 실습내용이라고 응답했고, 체중측정술(58.6%)이나 키측정술(52.9%) 등은 단순한 간호술이므로 별도로 실습을 해보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 개인위생간호술

9개 항목 중 가장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은 특별구강간호술(94%)이었으며, 등마싸지(87.1%), 구강간호(81.4%), 침상목욕(77.1%), 그리고 침상머리감기기(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점원침상만들기, 수술침상만들기, 보통침상만들기는 각각 68%, 61%, 56%가, 샤워는 48%만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룹에 따

<표 2> 기본간호학 이론교육내용에 대한 평가

| 기본간호학 이론교육내용 | 불필요 그제그렇다 필요 | | | 카이검증 |
|-----------------|--------------|----------|----------|---------|
| | 실수(%) | 실수(%) | 실수(%) | |
| 무균법과 격리법 | 0 | 1(1.4) | 69(98.6) | 1.7 |
| 개인위생 | 0 | 2(2.9) | 68(97.1) | 5.1 |
| 활력징후 | 0 | 3(4.3) | 67(95.7) | 1.8 |
| 투약 | 1(1.4) | 2(2.9) | 67(95.7) | 5.3 |
| 간호기록 | 1(1.4) | 4(5.7) | 65(92.9) | 2.8 |
| 기본육구 | 2(2.9) | 5(7.1) | 63(90) | 3.4 |
| 배설육구 | 3(4.3) | 4(5.7) | 63(90) | 4.2 |
| 배뇨육구 | 3(4.3) | 4(5.7) | 63(90) | 4.2 |
| 산소육구 | 4(5.7) | 3(4.3) | 63(90) | 4.4 |
| 안전육구 | 1(1.4) | 7(10) | 62(88.6) | 2.4 |
| 발열 | 2(2.9) | 6(8.6) | 62(88.6) | 3.1 |
| 영양육구 | 3(4.3) | 6(8.6) | 61(87.1) | 3.2 |
| 운동육구 | 4(5.7) | 7(10) | 59(84.3) | 4.0 |
| 간호사정 | 5(7.1) | 7(10) | 58(82.9) | 14.2** |
| 상처치유 | 1(1.4) | 12(17.1) | 57(81.4) | 3.3 |
| 수면원리 | 3(4.3) | 10(14.3) | 57(81.4) | 2.1 |
| 간호평가 | 5(7.1) | 8(11.4) | 57(81.4) | 14** |
| 간호진단 | 5(7.1) | 9(12.9) | 56(80) | 14.2** |
| 간호계획 | 5(7.1) | 10(14.3) | 55(78.6) | 13.1** |
| 간호중재 | 5(7.1) | 10(14.3) | 55(78.6) | 13.1** |
| 영적육구 | 9(12.9) | 6(8.6) | 55(78.6) | 7.1 |
| 동통원리 | 9(12.9) | 9(12.9) | 52(74.3) | 4.9 |
| 성적육구 | 8(11.4) | 15(21.4) | 47(67.1) | 9.1 |
| 약리작용 | 9(12.9) | 14(20) | 47(67.1) | 14.5** |
| 질병원리 | 9(12.9) | 18(25.7) | 43(61.4) | 10.5 |
| 수술간호 | 12(17.1) | 16(22.9) | 42(60) | 17.9*** |

* $P < .05$ ** $P < .01$ *** $P < .001$

른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구강간호였는데 3년제 교수의 60%, 4년제 교수의 83%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간호사의 9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침상만들기에 대한 필요도가 낮은 이유로는 실제 임상에서 침상을 만들 때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실습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으며, 사워 또한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답하였다.

3) 무균술 및 수술간호

11개 항목중 외과적 장갑착용술과 가운착용술은 대상자 모두가 필수적이라고 답하였고, 외과적 손씻기, 내과적 손씻기, 내과적 가운착용, 그리고 드레싱 셋 준비 등도 대상자의 94% 이상이 필요하다고 대답해 무균술에 대한 실습교육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무균술은 모든 간호술에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기술이므로 필수적인 실습교육내용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

욕창간호술, 수술전 피부간호, 수술전, 후 교육에 대해서는 그룹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욕창간호술에 대해 4년제 교수와 간호사들의 9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3년제 교수들은 65%가 필요하다고 답해 차이를 나타냈다($P < .05$). 수술전 대상자 피부간호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의 96%, 3년제 교수의 55%, 그리고 4년제 교수들의 54%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차이를 보였고($P < .001$), 수술전 환자교육에 대해서는 간호사 그룹 모두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3년제 교수들의 50%, 4년제 교수들의 42%가 필요하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P < .001$). 수술후 대상자간호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의 85%, 3년제 교수의 50%, 4년제 교수의 46%가 필요하다고 답해 그룹에 따른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다. 수술간호와 관련된 간호술이 불필요하거나 그저그렇다라고 답한 대상자 중에는 수술간호가 기본간호학에서보다 성인간호학에서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4) 온냉적용 간호술

7개 항목의 온냉적용 간호술은 대상자의 63-8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불필요하거나 그저그렇다라는 응답이 대상자의 18%에서 37%를 보였는데, 불필요하다거나 그저그렇다라고 대답한 대상자들 중에는 온냉적용 간호술들이 단순하고 특별히 어려운 실습과정이 없으므로 설명만으로 충분히 간호술을 익힐 수 있다고 답했다. 그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램프사용법($P < .05$)과 좌욕법($P < .01$)으로, 램프사용법에 대해 간호사의 85%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3년제 교수의

55%와 4년제 교수의 63%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좌욕법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96%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나 3년제 교수의 60%와 4년제 교수의 17%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여 임상실무교육간호사와 교수사이에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5) 안전욕구에 따른 간호술

안전욕구에 따른 간호술 8개 항목중 체위변경법은 대상자의 90%, 침대와 의자간 이동법은 86%, 침대에서 침대로의 이동법은 84%, 손목 및 발목억제대 사용법은 8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Mummy억제대 사용법은 대상자의 71%, 장갑사용법은 61%, 붕대사용법은 64%, 그리고 조끼 억제대 사용법은 6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거나 그저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견해로는 설명으로 사용법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침대와 의자간의 환자 이동법에 대해 그룹에 따른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는데, 3년제 교수의 75%, 4년제 교수의 92%, 그리고 간호사의 86%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6) 투약술

8개 항목의 투약술 중 피하주사법은 대상자의 99%, 피내주사법은 96%, 근육주사법은 96%, 정맥주사법은 93%가 필요하다고 답해 높은 필요도를 나타냈다. 또한 구강약, 안약, 코약, 피부약 투약술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64%-80%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그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강약 투약술에 대해서는 3, 4년제 교수의 70%, 간호사의 96%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안약투약술에 대해서는 3년제 교수의 65%, 4년제 교수의 63%, 그리고 간호사 모두(100%)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코약투약술에 대해서는 3년제 교수의 65%, 4년제 교수의 63%, 그리고 간호사의 96%가 필요하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피부약 투약술에 대해 3년제의 55%, 4년제의 46%, 그리고 간호사의 86%가 필요하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7) 영양 및 배설욕구에 따른 간호술

11개 항목 중 일시적, 또는 정체배뇨술은 대상자의 97%, 배변관장술은 96%, 정체관장술은 94%, 그리고 위관영양주입술은 90%가 필요하다고 답해 높은 필요도를 보였으며, 변기사용술은 대상자의 77%, 위관삼입술은 74%, 그리고 gastrostomy tube 간호술은 70%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colostomy 간호술과 방광세척술은

6%, 그리고 위세척술은 61%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 중 그룹에 따른 유의한 차이 ($P < .05$)를 보인 항목은 colostomy 간호술이었는데, 3년제 교수의 70%, 4년제 교수의 50%, 그리고 간호사의 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거나 그저그렇다고 답한 대상자들 중 번기사용술은 간단하여 실습이 필요하지 않고, 위관삽입, 방광세척, 그리고 위세척 등은 의사의 업무이므로 기본간호학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다, gastromy tube 간호나 결장루 간호 등은 성인간호학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답해 기본간호학에서 다루어야 할 간호술의 수준과 범주가 보다 명확해져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8) 산소용구에 따른 간호술

인후두 분비물 흡인술은 대상자의 93%, 기관절개관 간호술은 91%, 그리고 비강케늘라를 통한 산소주입술은 91%, 그리고 마스크를 통한 산소주입술은 89%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텐트나 후두를 이용한 산소주입술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70%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텐트나 후두 사용법은 성인간호학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없었다.

9) 건강사정술

7개 항목의 건강사정술과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 대상자들은 65-67%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7개 항목 모두가 그룹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P < .01$) 보였다. 건강사정술이 3년제 교수와 4년제 교수의 50%가 기본간호학 실습내용에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간호사는 92%가 필요하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불필요하거나 그저그렇다라고 답한 대상자 중 대부분이 건강사정은 특수한 기술이므로 독립된 과목으로 분리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사후처치법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57%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불필요하거나 그저그렇다고 답한 대상자 중에는 성인간호 등에서 가르치면 좋겠다는 견해가 있었다.

10) 간호기록술

활력증상기록,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술, 그리고 간호수행기록술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97-99%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높은 필요도를 나타냈으며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3> 기본간호학 실습교육내용에 대한 평가

| 항목 | 불필요 실수(%) | 그저그렇다 실수(%) | 필요 실수(%) | 카이검중 |
|-------------------------------|--------------|----------------|-------------|---------|
| 1. 활력징후 및 체격 측정술(11항목) | | | | |
| 요골동맥박측정 | 0 | 1(1.4) | 69(98.6) | 1.9 |
| 경동맥박측정 | 0 | 1(1.4) | 69(98.6) | 1.9 |
| 상박혈압측정 | 0 | 1(1.4) | 69(98.6) | 1.9 |
| 심첨맥박측정 | 0 | 2(2.9) | 68(97.1) | 0.8 |
| 호흡측정 | 0 | 2(2.9) | 68(97.1) | 0.8 |
| 구강체온측정 | 0 | 3(4.3) | 67(95.7) | 1.8 |
| 액외체온측정 | 0 | 3(4.3) | 67(95.7) | 1.8 |
| 대퇴혈압측정 | 0 | 14(20) | 56(80) | 0.6 |
| 항문체온측정 | 3(4.3) | 13(18.6) | 54(77.1) | 6.3 |
| 체중측정 | 7(10) | 22(31.4) | 41(58.6) | 7.2 |
| 키측정 | 7(10) | 26(37.1) | 37(52.9) | 5.8 |
| 2. 개인위생간호술(9항목) | | | | |
| 특별구강간호 | 0 | 4(5.7) | 66(94.3) | 2.5 |
| 등마싸지 | 1(1.4) | 8(11.4) | 61(87.1) | 4.7 |
| 구강간호 | 1(1.4) | 11(15.7) | 57(81.4) | 11.7* |
| 침상목욕 | 2(2.9) | 14(20) | 54(77.1) | 0.8 |
| 침상머리감기기 | 4(5.9) | 17(24.3) | 49(70) | 3.1 |
| 환자점유침상만들기 | 3(4.3) | 19(27.1) | 48(68.6) | 3.7 |
| 수술침상만들기 | 5(7.1) | 22(31.4) | 43(61.4) | 2.5 |
| 보통침상만들기 | 7(10) | 24(34.3) | 39(55.7) | 1.8 |
| 사 위 | 16(22.9) | 22(31.4) | 32(45.7) | 5.6 |
| 3. 무균술 및 수술간호(11항목) | | | | |
| 외과적 장갑착용 | 0 | 0 | 70(100) | - |
| 외과적 가운착용 | 0 | 0 | 70(100) | - |
| 외과적 손씻기 | 0 | 1(1.4) | 69(98.6) | 1.9 |
| 내과적 손씻기 | 1(1.4) | 2(2.9) | 67(95.7) | 3.2 |
| 내과적 가운착용 | 1(1.4) | 2(2.9) | 67(95.7) | 3.3 |
| 드레싱세트 준비 | 0 | 4(5.9) | 66(94.3) | 0.9 |
| 상처간호술 | 2(2.9) | 8(11.1) | 60(85.7) | 5.9 |
| 욕창간호술 | 2(2.9) | 9(12.9) | 59(84.3) | 9.4* |
| 수술전피부간호 | 7(10) | 14(20) | 49(70) | 13.6** |
| 수술전대상자교육 | 13(18.6) | 11(15.7) | 46(65.7) | 22.1*** |
| 수술후대상자간호 | 10(14.3) | 17(24.3) | 43(61.4) | 9.6* |
| 4. 온냉적용간호술(7항목) | | | | |
| 찬물주머니 | 0 | 13(18.6) | 57(81.4) | 3.8 |
| 더운물주머니 | 0 | 14(20) | 56(80) | 0.6 |
| 온찜질 | 1(1.4) | 18(25.7) | 51(72.9) | 6.5 |
| 램프사용법 | 3(4.3) | 18(25) | 49(70) | 10.1* |
| 냉찜질 | 2(2.9) | 19(27.1) | 49(70) | 6.8 |
| 좌욕법 | 2(2.9) | 19(27.1) | 49(70) | 14.1** |
| 미온수마싸지 | 3(4.3) | 23(32.9) | 44(62.3) | 6.0 |
| 5. 안전목구에 따른 간호술(8항목) | | | | |
| 체위변경 | 1(1.4) | 6(8.6) | 63(90) | 2.8 |
| 침대와 의자간의 이동 | 2(2.9) | 8(11.4) | 60(85.7) | 8.5 |
|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 | 2(2.9) | 9(12.9) | 59(84.3) | 10.5* |

〈표 3〉 계속

| 항목 | 불필요 실수(%) | 그저그렇다 실수(%) | 필요 실수(%) | 카이검증 |
|-------------------------------|--------------|----------------|-------------|---------|
| 손목및 발목억제대 사용 | 3(4.3) | 10(14.3) | 57(81.4) | 0.3 |
| Mummy억제대 사용 | 5(7.1) | 15(21.4) | 50(71.4) | 2.4 |
| 장갑억제대 사용 | 7(10) | 17(24.3) | 46(65.7) | 2.1 |
| 붕대사용법 | 4(5.7) | 21(30.0) | 45(64.3) | 6.1 |
| 조끼억제대 사용 | 5(7.1) | 22(31.4) | 43(61.4) | 1.2 |
| 6. 투약술(8항목) | | | | |
| 피하주사법 | 0 | 1(1.4) | 69(98.6) | 2.5 |
| 피내주사법 | 0 | 3(4.3) | 67(95.7) | 2.7 |
| 근육주사법 | 1(1.4) | 2(2.9) | 67(95.7) | 3.7 |
| 정맥주사법 | 1(1.4) | 4(5.7) | 65(92.9) | 2.6 |
| 구강약 | 3(4.3) | 11(15.7) | 56(80) | 10.2* |
| 안 약 | 1(1.4) | 15(21.4) | 54(77.1) | 13.6** |
| 코 약 | 1(1.4) | 16(22.9) | 53(75.7) | 10.7* |
| 피부약 | 7(10) | 18(25.7) | 45(64.3) | 18.5*** |
| 7. 영양및 배설, 배뇨욕구에 따른 간호술(11항목) | | | | |
| 일시적 인공배뇨 | 0 | 2(2.9) | 68(97.1) | 0.8 |
| 정체인공배뇨 | 1(1.4) | 1(1.4) | 68(97.1) | 4.2 |
| 배변관장술 | 1(1.4) | 2(2.9) | 67(95.7) | 3.7 |
| 정체관장술 | 1(1.4) | 3(4.3) | 66(94.3) | 4.5 |
| 위관영양주입기술 | 0 | 7(10) | 63(90) | 1.8 |
| 변기사용술 | 3(4.3) | 13(18.6) | 54(77.1) | 2.6 |
| 위관삽입기술 | 5(7.1) | 13(18.6) | 52(74.3) | 5.4 |
| gastrostomy tube 간호 | 4(5.7) | 17(24.3) | 49(70) | 6.7 |
| colostomy 간호 | 4(5.7) | 19(27.1) | 47(67.1) | 10.4* |
| 방광세척술 | 7(10) | 16(22.9) | 47(67.1) | 0.5 |
| 위세척술 | 9(12.9) | 18(25.7) | 43(61.4) | 0.8 |
| 8. 산소욕구에 따른 간호술(5항목) | | | | |
| 인후두 분비물흡입술 | 0 | 5(7.1) | 65(92.9) | 1.6 |
| 기관절개관 간호술 | 0 | 6(8.6) | 64(91.4) | 1.2 |
| 산소주입술(비강캐놀라) | 1(1.4) | 5(7.1) | 64(91.4) | 7.6 |
| 산소주입술(마스크) | 1(1.4) | 7(10.0) | 62(88.6) | 4.4 |
| 산소주입술(텐트, 후두) | 4(5.7) | 17(24.3) | 49(70) | 5.9 |
| 9. 건강사정술(8항목) | | | | |
| 호흡계사정 | 10(14.3) | 13(18.6) | 47(67.1) | 14.5** |
| 피부사정 | 10(14.3) | 13(18.6) | 47(67.1) | 15.9** |
| 순환계사정 | 10(14.3) | 14(20) | 46(65.7) | 16.1** |
| 신경계사정 | 10(14.3) | 14(20) | 46(65.7) | 16.1** |
| 얼굴(눈코귀입)사정 | 10(14.3) | 14(20) | 46(65.7) | 16.1** |
| 근육골격계 사정 | 10(14.3) | 14(20) | 46(65.7) | 16.1** |
| 복부계사정 | 10(14.3) | 14(20) | 46(65.7) | 16.1** |
| 사후처치법 | 8(11.4) | 22(31.4) | 40(57.1) | 8.07 |
| 10. 간호기록술(3항목) | | | | |
| 활동증상기록 | 1(1.4) | 0 | 69(98.6) | 2.5 |
|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술 | 0 | 1(1.4) | 69(98.6) | 1.9 |
| 간호수행기록 | 0 | 2(2.9) | 68(97.1) | 1.1 |

*P<.05 **P<.01 ***P<.001

5. 기본간호학의 문제점

전체대상자의 약67%인 47명이 기본간호학의 문제점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여 주제별로 정리해 본 결과는 표 4와 같이 기본간호학 교과내용, 기본간호학 학습교재, 기본간호학 교수, 그리고 기본간호학을 수강한 학생의 능력 등 4개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대상자가 서술한 문제점이 하나 이상인 경우가 있어서 빈도수는 대상자 수와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기본간호학 교과내용면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다른 간호학(특히 성인간호학)에서 다루는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많다고 14명이 답하였고, 기본간호학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한 대상자는 11명이었으며, 7명은 간호기술보다 이론에 더 치중해 있다고 지적했고, 교과내용이 임상실제와 맞지 않는다(2명), 그리고 최근의 이론이나 새로운 간호술이 누락되어 있다(2명)는 지적도 있었다. 학습교재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시청각자료가 너무 낡았다고 지적한 대상자가 3명이었으며, 시청각 교육자료나

〈표 3〉 기본간호학의 문제점

| 항목 | 문제점 | 빈도수 |
|------|---|-----|
| 교과내용 | 1. 타 간호학과목의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많다. | 14 |
| | 2. 내용이 광범위 하다 | 11 |
| | 3. 간호기술보다 이론에 더 치중해 있다. | 7 |
| | 4. 교과내용이 임상의 실제와 맞지 않는다. | 2 |
| | 5. 최근의 이론이나 새로운 간호술이 누락되어 있다. | 2 |
| 학습교재 | 1. 시청각 교육자료가 너무 낡았다. | 3 |
| | 2. 시청각 교육자료나 모형이 외국자료이므로 한국의 임상실제와 다르다 | 3 |
| 교육자 | 1. 학교교육과 임상과의 차이가 심한데도가 르치는 내용에 별 진전이 없다. | 4 |
| | 2. 교수가 실제경험없이 가르친다. | 2 |
| | 3. 기본간호술에 있어 실습지도 교수들간에 차이가 있다. | 1 |
| 학생 | 1. 기본간호학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다 | 7 |
| | 2.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키지 못해 문제해결을 하지 못한다. | 6 |
| | 3. 학생들의 간호술이 부족하다. | 5 |
| | 4. 도구를 다루지 못한다. | 2 |
| | 5. 임상실습에 임할 때 재교육을 해야 한다. | 2 |
| 기타 | 1. 학점수가 학교마다 다르다. | 2 |

모형이 외국자료이므로 한국의 임상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한 대상자가 3명이었다. 교육자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학교교육과 임상과의 차이가 심한데도 가르치는 내용에 별 전전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고(4명), 교수가 실제 경험이 없어 가르친다(2명), 그리고 기본간호술에 있어 실습지도 교수들간에 차이가 있다(1)는 지적도 있었다. 학생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기본간호학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7명)이 가장 많았고, 이론과 실제를 잘 연결시키지 못해 문제해결을 하지 못한다(6명), 학생들의 간호술이 부족하다(5명), 도구를 다루지 못한다(2명), 그리고 임상실습에 임할 때 재교육을 해야 한다(2명)라는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문제점으로는 학습수가 학교마다 다르다(2명)는 지적이 있었다.

6. 기본간호학의 개선방향

전체 대상자의 50%인 35명이 응답한 기본간호학의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견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교과내용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기본간호학에서 다룰 필수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표준화해야 한다고 6명이 제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을 기초적인 이론

<표 5> 기본간호학의 개선방향

| 구분 | 개선방향 | 빈도수 |
|------|---------------------------------------|-----|
| 교과내용 | 1. 기본간호학에서 다룰 필수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표준화해야 한다. | 6 |
| | 2. 교육내용을 기초적인 이론과 간호술 수준으로 한정해야 한다. | 4 |
| 학습교재 | 1. 한국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시청각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 2 |
| | 2. 자율실습을 위한 자율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 2 |
| | 3. 새로운 간호술과 이론을 보충하여 학습자료를 개선해야 한다. | 1 |
| 교육자 | 1. 기본간호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임상활동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 | 5 |
| | 2. 주임교수제를 실시하면 좋겠다. | 1 |
| | 3. 임상교수제를 실시하면 좋겠다. | 1 |
| 기타 | 1. 학생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실습평가도구를 만들어야 한다 | 4 |
| | 2. 기본간호학 이수학점을 똑같이 평준화시켜야 한다. | 4 |
| | 3. 자율실습실을 운영해야 한다. | 1 |

과 간호술 수준으로 한정해야 한다라고 4명이 제시하였다. 학습교재면에서는 한국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시청각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2명), 자율실습을 위한 자율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2명), 그리고 새로운 간호술과 이론을 보충하여 학습자료를 개선해야 한다(1명) 등이 제시되었다. 교육자에 대해서는 기본간호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임상활동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5)는 제시가 많았고, 임상전임교수제를 실시하면 좋겠다(2)는 제시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학생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실습평가도구를 만들어야 한다(4명), 기본간호학 이수 학점수를 똑같이 평준화시켜야 한다(4명), 그리고 자율실습실을 운영해야 한다(1명)는 제시들이 있었다.

V. 논 의

1. 필요성

위의 연구결과 연구대상자 중 93%가 기본간호학 이론교육이 간호학전공과 임상간호활동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습교육은 대상자의 96%가 간호학전공에 필수적이고, 97%가 임상활동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본간호학은 간호학생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간호이론과 간호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과목으로서 간호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목이고, 임상간호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목임을 시사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또한 기본간호학 교육내용이 변해야 한다는데 반대보다 높은 찬성률을 나타내 과학기술과 의학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간호학도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임상간호사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가 교수들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에서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과 기술, 새로운 기구사용법 등을 빠르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 교육내용의 변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간호학의 실습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대해서도 또한 간호사들의 85%가 찬성률을 보여 63-65%의 찬성률을 보인 교수들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꾸준히 의료서비스가 발달되고 있고, 간호대상자들의 질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보다 숙련된 전문간호기술이 임상에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간호학이 시대에 적합한 간호교육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상의 변화와 임상실무 간호교육간호사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간호학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론교육에 있어서는 무균법과 격리법, 개인위생, 활력징후, 투약, 간호기록, 생리적인 욕구 등에 대한 한결같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실습교육에 있어서도 활력징후측정술, 무균술, 주사법, 인공배뇨, 간호기록 등에 대해 거의 모두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30내지 50%만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있어 기본간호학이 계속 이 내용들을 가르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보다 엄밀한 조사연구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 연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하나는 기본간호학 교과내용이 다른 과목들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기본간호학 이론교육 내용이 성인간호학 과목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기본간호학 인지 아니면 성인간호학인지 분간하기 힘들며, 다른 과목들에서 배우면 될 것을 쓸데 없이 이중으로 배우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른 과목과 중복이 많다 보니 내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정해진 시간에 내용을 마칠 수 없어 명확하게 개념을 익히거나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기 보다는 강의실에서 이론의 나열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또한 교과내용의 중복으로 기본간호학의 정체성이 불투명해지고 따라서 학생들이 기본간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본간호학이 독립된 전공과목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본간호학만의 독특한 교과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본간호 교과내용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간호학의 필수개념을 정리하고 표준적인 교과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임상과 이론과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임상실무교육간호사들은 실무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 기본간호학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을 때가 있고, 학생들이나 신졸간호사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임상간호사와 교수들 사이에 여러가지 기본간호학 교육내용에 대

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임상과 교육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많은 대상자들은 기본간호학의 일부 교육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1996)는 기본간호학이 다른 간호학 분야보다 가장 기본을 다루고 있어 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많은 병원에서의 간호체계와 간호기술에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필요한 근본적인 간호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기본간호학에서 다루는 교육내용도 간호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본간호학을 지도하는 교수들의 임상실무능력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간호학은 간호실무를 위한 학문으로서 배운지식과 기술을 실무에서 효율적으로 응용하도록 되어 있는 학문이므로 간호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기술을 수행하는 능력 그리고 교수능력이다(신, 1993). 특히 기본간호학을 담당하는 교수에게는 전문적 간호기술을 수행하는 임상능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의 임상능력 부족으로 실습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론교육에만 치중하거나 또는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실습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상교수제도를 도입하던지 또는 간호교수들이 필수적으로 임상에서 활동하도록 하던지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본간호학 학습자료의 낙후성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책이나 비디오 등의 학습자료와 시청각자료가 시기적으로 오래된 기술이나 지식을 담고 있거나 한국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이 이를 보고 배우고서 임상에 임할 때에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 이는 앞에 언급되었듯이 교수들이 최근 임상기술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기보다는 외국의 교재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재개발에 임상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질문지조사를 통해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기본간호학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내용의 필요성과 문제점과 그리고 개선책을 파악하여 기본간호학 교과과

정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되었다. 전국에 규모가 큰 학교와 병원을 지역별로 임의로 할당하여 3년제 대학 간호학교수 30명, 4년제 대학 간호학교수 30명, 그리고 임상실무교육담당 간호사 40명에게 질문지를 돌려 그 결과를 통계처리를 하거나 또는 질서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행해지고 있는 기본간호학 내용에서 어떠한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평가에 3년제 간호학교수, 4년제 간호학교수, 그리고 임상실무담당 간호사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93% 이상이 기본간호학 이론교육이나 실습교육이 간호학 교육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모든 집단이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대부분의 항목들이 80% 이상의 응답자에게서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으나 몇몇 항목들은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론교육에 있어서 수술간호, 질병원리, 약리작용, 성격유구에 대한 필요성은 60%대의 응답자에게서만 받아들여져 다른 항목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실습교육에 있어서도 체중측정, 키 측정, 보통치상만들기, 사위, 사후처치법은 50%대의 응답자에게서만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으며 환자점유침상만들기, ←술침상만들기, 수술전 대상자교육, 수술후대상자간호, colostomy 간호, 방광세척술, 위세척술, 호흡계사정, 피부사정, 순환계사정, 신경계사정, 얼굴사정, 근육골격계사정, 복부계사정 등은 60%대의 응답자에게서만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이들 항목에 대한 필요도가 다른 항목보다 낮게 평가된 이유는 성인간호학이나 신계사정 등의 다른 과목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거나 또는 실습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본간호학의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는데 타 간호학과목과 내용이 중복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경우와 기본간호학 내용이 광범위하다고 지적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교수들이 임상을 잘 모르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교재내용이 낡았고, 시청각 자료들이 외국 것으로 한국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간호학의 필수개념을 표준화하고 교육내용의 수준을 한정시켜야 하며, 기본간호학 교수들이 임상을 병행하여야 하고, 표준화된 실습평가도구를 개발하여야 하고, 기본간호학 이수학점을 표준화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많이 제기되었다.

이상의 조사결과는 전체적으로 기본간호학교육이 필

요하지만 개개항목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 이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기본간호학 교수들이 임상현실을 파악하여 교육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한국현실에 적합한 교재와 시청각자료를 시급히 개발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2. 제 언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필자들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1) 기본간호학 교과내용 조정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간호학 교수들과 지도적인 임상실무간호사들을 주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간호학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과내용들을 정하고, 다른 전공과 중복된 분야를 정리하고, 표준화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정립하고, 표준화된 실습평가도구를 만들어야 한다. 중복된 부분에 대한 정리를 위해 간호학 교수에는 기본간호학 전공자 이외에도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그리고 의학교수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본간호학의 통일된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2) 우리나라의 임상현실에 적합한 교재와 시청각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간호학교수와 임상간호사들이 동시에 참여한 교재개발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이들은 외국교재의 단순한 번역이나 도입을 넘어서 한국적 간호현실을 반영한 보다 학습효과가 높은 교재와 교육자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3) 기본간호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임상활동 병용제나 임상실습담당 교수제 등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현실에 적합한 전문간호술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수금(1984). 기본간호요구에 대한 간호학생의 중요성 인식과 간호활동 수행에 관한 조사연구. 성신간호전문대학논문집, 2, 141-157.
- 강현숙(1990). 기본간호학 실습 videotape을 이용한 사전교육이 첫 임상실습 전 불안에 미치는 효과. 공주전문대학논문집, 17, 171-183.
- 강홍순(1971). 간호학 교과과정 계획을 위한 기본: 학생간호원의 심리적 요구. 대한간호학회지, 10(2), 45-64.

- 고성희 및 김기미(1994).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 33(2), 59-72.
- 권영숙(1985). 일 종합병원 입원환자들의 기본간호에 대한 요구도 및 만족도. 동산간호전문대학 논문집, 4, 87-117.
- 김금순(1995). 임상간호기법. 서울: 현문사.
- 김금순(1995). 기본간호실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동연, 박지은 및 심정옥(1992). 기본간호에 대한 간호학생의 인식도와 수행도 비교. 카톨릭간호, 13, 45-54.
- 김명자, 김종임, 김금순, 박형숙, 김정순, 최순희 및 송경애(1995). 기본간호학상, 하. 서울: 현문사.
- 김미라(1976). 기본간호 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 연구. 대한간호, 15(2), 53-
- 김순자 및 강현숙(1982). 기본간호학 교육의 현황: 간호학 학사과정. 대한간호, 21(3), 37-48.
- 김순자, 김애자, 이선옥 및 박점희(1992). 기본간호학, 4판. 서울: 수문사.
- 김애실(1974). 간호학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4(2), 1-16.
- 변영순(1983). 기초간호학 교과과정의 방향. 간호학회지, 13(1), 95-98.
- 변창자(1974). 교과과정의 실제: 간호전문학교를 중심으로. 대한간호, 13(6), 22-39.
- 서울대학교병원(1994). 임상간호 실무지침 1: 간호방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손영희(1979). 기본간호행위에 작용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 111-136.
- 손영희, 김원옥, 양선희, 양승희, 유재희 외 공저(1996). 기본간호학상, 하. 서울: 현문사.
- 손영희, 김원옥, 양선희, 양승희, 유재희 외 공저(1996). 간호중재를 위한 기본간호실제. 서울: 현문사.
- 신경림(1993). 임상교육의 효과적인 대안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32(5), 93-104.
- 양광희, 고영애, 조희, 강운숙 및 이옥철(1994). 병원의 간호사 평가도구와 간호교육 기관의 학생실습 평가도구의 내용비교. 적십자 간호전문대학논문집, 16, 17-47.
- 양원영(1994). 간호전문대학 임상실습 교육의 실제. 생활간호, 10, 82-85.
- 유재희(1992). 간호전문대학 졸업반 학생의 기본간호술 정확도 및 자신감에 대한 조사연구. 경기간호보건의전문대학 논문집, 19, 25-40.
- 유재희(1996). 기본 간호학 실습교육의 현황. 기본간호학회지, 2(2), 199-211.
- 이숙자(1989).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법 및 통제의 성격과의 관계 연구. 인천간호보건의전문대학 논문집, 7, 5-19.
- 장옥자(1996). 기본간호학 실습서(재판). 서울: 현문사.
- 정정숙(1992). 환자와 간호사의 기본간호 요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 예수간호전문대학 논문집, 8(1), 69-95.
- 정현숙, 강규숙 및 고일선(1994). 기본간호학: 원리와 실제. 서울: 신광출판사.
- 정현숙, 전춘영, 강규숙, 임영신, 이해원, 송인자, 김용순, 황애란 및 서예원(1994). 간호기술의 원리와 실제. 서울: 신광출판사.
- 조원정 및 이경자(1992).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일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2(2), 207-226.
- 조원정, 김소야자, 오가실, 유지수, 황애란, 김혜숙 및 고일선(1994). 간호학 교과과정 개념틀 개발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4(3), 473-483.
- 차정순(1981). 기본간호 및 실습교육과정 자신감에 관한 조사연구. 청주간호전문대학 논문집, 7, 51-70.
- 한호순(1983). 부산시내 일부 종합병원 간호원들의 기본간호 지식정도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복음간호전문대학 논문집, 1, 97-107.
- 한호순(1989). 간호전문 대학생들의 기본간호 실습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복음간호전문대학 논문집, 6, 148-161.
- 홍근표, 정현숙, 강현숙, 오세영 및 임난영(1995). 기본간호학상, 하(제2판). 서울: 수문사.
- 홍여신(1985). 간호대학 교과과정의 노인간호 적용. 대한간호, 24(2), 28-29.
- 홍옥순, 강규숙 및 이정희(1995). 기본간호학(개정판). 서울: 대한간호협회.

– Abstract –

Key concept : Fundamental Nursing

**A Study on the Content of
Fundamentals of Nursing in Korea
– Focused on Nursing Professors and
Clinical Educators –**

Kang, Ku Sook · Kong, Eun Sook*

This study analyzed the necessity of detailed items of fundamentals of nursing education in college by soliciting answers from clinical nursing educators in hospitals and nursing professor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four parts. The first part included questions about the gener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the second part, questions about the general necessity of fundamentals of nursing, the third part, questions about the necessity of 26 items in fundamentals of nursing in knowledge education and about the necessity of 81 items in fundamentals of nursing in practice education, the fourth part solicited free description of ideas about the problems education in fundamentals of nursing in Korea. Thirty professors from universities, 30 professors from community, and 30 clinical nursing educators were randomly sampled and the questionnaires were sent by mail. Seventy people returned completed questionnaires.

Ninety three percent evaluated fundamentals of nursing as necessary for nursing not only in knowledge education but also in practice education. They

also generally agreed on what items are necessary for fundamentals of nursing. However, opinions about some items were split between nursing scholars and clinical nursing educators. Clinical educators wanted fundamentals of nursing to be more practical and to incorporate recent developments and changes in clinical settings.

They described several problems in fundamentals of nursing. One was that some the content of fundamentals of nursing overlaps with other subjects, especially with adult nursing. Some respondents also thought that fundamentals of nursing included too many topics. These problems make it difficult for students, scholars, and nurses identify what fundamentals of nursing is. This causes an identity problem in fundamentals of nursing. Some disparity between clinical nursing and knowledge education in fundamentals of nursing was also reported. This was also related to problems lack of clinical experience in teachers of fundamentals of nursing. Some respondents suggested requiring clinical experience for professors or establishing a system of clinical professorship. Problems of teaching material were also pointed out. Fundamental nursing skills and knowledge in teaching materials are often old or not appropriate for the Korean nursing situation. The respondents urged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appropriate for Korean nursing.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authors suggest forming an ad hoc committee which can reformulate and standardize education in fundamentals of nursing in Korea.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Korea
Tel : 82-2-361-8140, Fax : 82-2-392-5440